

## 삼위일체의 공간성(Spatiality)과 그리스도 사역의 장소적 의의에 관한 연구

김승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삼위일체의 공간/장소적 특징

1. 공간의 기원으로서 삼위일체
2.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상
3. 피조물의 정주 공간으로서 삼위의 세계

### III. 그리스도 사역의 장소적 의의: 십자가, 성만찬, 부활

1. 십자가, 타자를 향한 포용의 공간
2. 성만찬, 환대와 일치의 공간
3. 부활, 변화와 새로움의 공간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7>

---

• ABSTRACT •

---

A study of the spatiality of the Trinity and the placeness of Christ's  
ministry

Lecturer, Kim, Seung Hwan(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reflects on the essential nature of space and place by examining the spatiality of the Trinity as the origin of space and place. The ontological character and work of the Trinitarian God as the creator of space/place leads to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sites for human societies occupying space. As Jürgen Moltmann suggests, the Trinitarian God exists in a relationship of perichoresis, interpenetration, and intersubjectivity. This way of being of the Trinity reveals a divine significance that emphasizes the relationality and reciprocity of space/place. Based on the relationality of divine love, the socialization and mutual response that unfolds in space must be translated into human space/place practices. As the origin of space, the sacred space of the Trinity is also relational and is the foundation for being everywhere. This Trinitarian space/place is further embodied in the activity of Jesus. T. F. Torrance identifies Christ-centered spatiality around the events of the cross, the Lord's Supper, and the resurrection. By examining the spatial implications of divine spatiality and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the researcher will propose divine fellowship and relational fullness in the places of life for the Korean church and Christians.

**Key words:** Divine spatiality, house of God, space/place theology, Urban theology, T. F. Torrance

---

## I. 들어가는 말

어거스틴 이후로 시간에 대한 신학적 사유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공간에 대한 성찰은 의외로 많지 않다. 공간의 신학적이며 자연과학적 문제에 대한 마지막 주요 토의는 17세기에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에서 일어났다. 모든 유한한 사물들 속에 공존하는 절대 공간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속성인지, 아니면 공간들은 각각의 대상들의 자기 확대인지, 또한 전체 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연결된 사물들의 관계 조직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sup>1)</sup> 사물과 개체의 공간 또는 공간성에 관한 논의를 신적 기원과 개체로 살피는 의미있는 논의였지만 근대에 이르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근대는 개별 대상들의 연관성을 서로 분리시켜 객체화시키고 세분화하며 개체화했다. 또한 대상에 관한 추론과 추상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과 고정된 형태를 갖춘 의미를 부여했다. 특정한 대상을 전체에서 분리시켜 개별자(단독자)로 이해시키면서, 대상이 갖는 존재적 상호성과 인격성, 초월성과 항구성을 제거하면서, 대상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공간에 관한 존재론적, 신학적 논의들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개체화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의 환경과 깊은 상호관련성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킨다.

어떤 무엇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상호관련성 속에서 장소와 공간을 점유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존재(자)는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티모시 고린지(Timothy Gorrige)는 근현대 사회의 공간적 초월성 상실을 안타까워했다. 존재를 탈신성화, 탈관계화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동시에, 공간이 창출하는 관계적 의미를 소멸했다. 공간의 상실은

1)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212.

사회적 관계들을 엮어주는 매개인 상징과 의미, 스토리의 상실, 즉 공간의 죽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영역과 공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 주체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곧 존재의 불안정성과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소와 공간의 생명력을 위해서는 탈근대적 시각이 필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세속화로 잃어버린 신적인 관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sup>2)</sup>

공간을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로 다루는 것은 부분적으로 창조의 시간 문제를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 공간은 창조와 함께 창조되었을까? 아니면 공간은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을까? 창조는 공간을 하나님 밖에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출발시켰을까?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공간의 한계라면 하나님은 그의 창조 안에 스스로 거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절대 공간과 그의 창조의 상대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sup>3)</sup>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그 창조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는 이 창조를 하늘에서는 물론 땅에서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공간으로서 창조 세계는 모든 피조물이 거주하는 영역이자, 신적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는 장소이다. 모든 피조물은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삶의 풍성함을 발견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존재적 안식을 누리게 된다.<sup>4)</sup> 물론 공간과 장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간이 추상적이라면 장소는 구체적이다. 공간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장소는 정지된 곳이다. 공간이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장소는 분리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둘 사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공간과 장소의

2) Timothy Giringe, *A Theology of the Built Enviro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36-40.

3)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214.

4) 위의 책, 20.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성/장소성을 다루면서 현대 사회가 어떤 공간을 추구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적 공간성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자가 있다면, 칼 바르트, 위르겐 몰트만, T. F. 토렌스이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중심으로 신적 공간성을 설명한다. 공간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모든 공간 안에 거하시는 동시에, 모든 공간 안에서 신적 사역을 펼쳐 나간다. 피조된 공간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특히 예수의 성육신은 공간 안으로 찾아오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장소적 사역을 가장 잘 보여준 예시이기도 하다. 몰트만은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통하여 신적 공간성을 설명한다. 모든 장소가 자신의 장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속성을 회복해야 하며 다양성과 일치성을 통한 장소간의 상호적 유대를 추구해야 한다. 몰트만의 영향아래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 역시 하나님의 공간성을 통해 관계적 의의를 발견하고 있다. 우리는 세속의 한복판에서 분리된 장소의 독특성을 추구하는 대신 화해와 일치를 통한 장소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T. F. 토렌스는 그리스도 사역이 갖는 시공간적 특성에 주목했고, 특히 장소성을 강조해왔다. 이 글에서는 바르트를 통하여 공간의 신적 기원을, 몰트만을 통하여 공간의 신적 특성을, T. F. 토렌스를 통하여 그리스도 사역의 장소성을 살피면서 오늘날 도시 공간과 삶의 장소들이 회복해야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제안하려 한다.

## II. 삼위일체의 공간/장소적 특징

### 1. 공간의 기원으로서 삼위일체

인간은 장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장소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sup>5)</sup> 인간은 특정한 장소에서 묶여 있으며 타자와 다른

비인간적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즉 인간 존재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한 장소에 정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역, 즉 공간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공간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와의 만남과 사귀를 가능하게 한다. 특정한 공간 안에서 경험되는 사건과 만남은 인간 존재의 인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디자인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정주적 요소로서 장소와 공간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 기독교 전통에서 창조 신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처럼 모든 시공간을 하나님의 창조 영역으로 고백한다. 시공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형성된 것이며, 그분의 존재 방식과 본성을 닮아있다.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낸다면, 장소는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 방식을 설명한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기술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성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비인격적인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공간 안에서 자기 자신 또는 피조된 존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

두미트루 스타닐로에(Dumitru Staniloae)는 “(신적인) 공간은 인격 간의 연합으로 친밀함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간과 같이 공간도 상호적이며 완전한 교제를 향한 연합의 형태를 취한다”고 여겼다.<sup>6)</sup> 그렇기에 공간은 존재적 현실로서 상호 간의 소통 방식이자 만남과 연합의 장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적 존재성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의 인격성과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신성을

5) Timothy J. Gorringer, *A Theology of the Built Environment*, 1.

6) Dumitru Staniloae, *The Experience of God*, (Brookline: Holy Cross Orthodox Press, 1994), 173.

갖는 존재라면, 홀로 단독자로 계신 하나님이라면, 관계적 공간의 창조를 위한 어떠한 신적 토대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간에서의 인격성의 부재는 곧 관계의 단절, 즉 생명 없음(lifeless)을 의미하며 개별자들을 위한 공간만으로는 공간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sup>7)</sup> 존재하지 않은 존재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실을 상실한 것이기에 공간의 인격성은 공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삼위일체의 공간성’(divine spatiality)은 하나님의 본질(esse)과 관련된다. 그것은 모든 피조된 존재의 배경인 동시에 모든 존재의 정치사회적 삶의 형식을 규정한다. 신적 공간성이 단순한 장소의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존재성 자체를 규정한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신적 공간성을 설명하면서 피조된 모든 공간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공간에 머무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피조된 공간에 머무르는 방식 역시 삼위일체의 형식을 취하는데 ‘그리스도 안에’(in Christ), ‘하나님 안에’(in God), ‘성령님 안에’(in the Spirit)와 같이 피조된 존재를 자신 안으로 품으시고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형식인 (신적인) ‘~안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태초의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는 삼위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가질 수 없음을 설명하는 문구이기도 하다.<sup>8)</sup>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간의 기원인 동시에 피조된 공간의 특징(성격)을 규정하신다. 삼위의 공간은 바로 인격적 관계(relational)인 동시에 사랑의 사권이 가능한 연합의 장이다. 이것은 물리

7) R. Venter, "Space, Trinity and City: A Theological Exploration," *Acta Theologica* 1(2006), 207.

8) T. J. Gorringer, *A Theology of the Built Environment*, 42.

적인 공간의 특징을 넘어서는 존재의 사회적, 심미적인 특징과도 연결된다. 더 나아가 모든 존재는 관계와 연합의 장안에 서로 얽여있음을 밝히는 주요한 토대가 된다.

공간을 창조하고 동시에 모든 공간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편재(omnipresence)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과 관련된다. 피조 세계 안에서의 그분의 내주는 그분의 전적인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sup>9)</sup>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분의 사랑에 의한 결과이기에 만약 모든 공간 안에 사랑이 부재한다면 그것은 신적인 활동과 존재의 부재로 인식될 수 있다.<sup>10)</sup> 물론 신적 공간성(spatiality)과 비공간성(non-spatiality)을 논의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신적 장소성을 전제할 때,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물질적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신적 비장소성을 제안할 때는 개념화된 추상적 실체로서 하나님을 전제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장소성을 하나님 자신의 공간으로 풀어갔다.<sup>11)</sup> 바르트의 입장에서 신적 공간성은 곧 삼위일체의 신성성의 문제이다. 모든 공간의 기원인 삼위일체는 그분의 관계 안에서 신적 공간성을 확인할 수 있다.

T. F. 토렌스는 페리코레시스 개념에서 상호 내주를 ‘공간’ 또는 ‘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코라’(chora) 혹은 ‘공간을 만들다’를 의미하는 코레인(chorein)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한다.<sup>12)</sup>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존재하며, 그분의 신적인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신다. 삼위일체의 신적인 ‘근거리’(prox-

9) 위의 책, 43.

10) R. Venter, “Space, Trinity and City: A Theological Exploration,” 208.

11) James R. Gordon, “Rethinking Divine Spatiality: Divine Omnipresence in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The Heythrop Journal*, (2018), 537.

12) 김학봉,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과 과학 신학의 추구: 토마스 토렌스” 김동규 외,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2』 (서울: 도서출판100, 2022), 290.

imity)와 ‘원거리’(remoteness), 즉 가까움과 거리됨은 물리적인 특성과 심미적인 특성 모두를 포함하며, 그분을 닮은 피조물들 역시 서로의 관계 안에서 근거리와 원거리로 말할 수 있는 관계 장소적인 모티브가 된다. 신적인 가까움과 넓은 거리됨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자 섭리의 행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역사의 한복판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도 관련된다.

존 지지올라스(John Zizioulas)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상호거주의 개념으로 신적 장소성을 언급한다. 그가 설명하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상호거주’(mutual indwelling, *Einwohnung*)와 이 거주를 통하여 나타난 영원한 사랑의 사귀를 ‘순환’(Perichorese)이라는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sup>13)</sup> 상이한 위격들의 영원한 사귀가 그들 상호간의 거함과 상호침투의 힘으로 하나님 안에 남아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상호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며 그분의 사역도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계를 사랑하시며, 세계 안에 거하시며 반대로 세계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침투되고 있다.<sup>14)</sup> 삼위일체의 상호거주, 즉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거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호 거주를 반영하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서로의 사랑안에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 된다. 세계가 하나님의 공간 안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장소라는 생각은 기독교 전통에서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왔던 주제이다. 콜링지는 칼뱅의 논의를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운영되는 극장으로 서술한다. 하나님 영광의 장으로서 피조세계는 모든 장소의 본래적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13)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Studies In Personhood And The Church*, 이세형, 정성애 역, 『친교로서의 존재』 (서울: 삼원서원, 2012).

14)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36-37.

공간의 거룩함과 사랑의 충만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임을 제안한다.<sup>15)</sup> 도린 매시(Doreen B. Massey) 역시 현실 세계의 물리적 공간을 상호적인 특성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공간은 상호 관계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고정된 어떤 형태를 취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권의 연속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공간의 규모와 크기, 다수의 존재와 공동체가 공간을 이용하고 점유하는 다중성을 띤다. 공간은 장소의 물질성과 다르게 정치적 역학과 주체들의 지위와 행위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며 재생된다.<sup>16)</sup> 현대 도시의 세속화와 자본화로 인해 개별적 영역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차별화하려는 태도는 공간의 관계성과 생명의 충만함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적 특성을 회복하려는 신학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2.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상

몰트만은 『창조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상호 내주의 관계적 모델이 모든 존재의 공간적 관계를 설명한다고 여겼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며, 공간 안에 거주하면서 그 공간은 자기 내어줌을 통해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sup>17)</sup> 하나님이 공간의 기원으로서 공간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신다. 하나님이 공간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공간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요, 하나님의 주거지이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 위에서 활동한다. 하늘은

15) Timothy Gorringer, *God's Theatre: A Theology of Providence*, (SCM Press, 2012).

16) Doreen Massey, *For Space*,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 (서울: 심산, 2016), 35-36.

17) Timothy Gorringer, *A Theology of the Built Environment*, 44.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영역이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하며 하늘은 물론 땅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게 한다.<sup>18)</sup> 이러한 접근은 유한성 속에 있는 하늘과 땅이 무한자의 거주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공간에 거주하시며, 세계에 참여함으로 관계하신다.

공간 창조의 신적인 비밀은 쉼히나(Schechina, 신적인 임재)에 감추어져 있다. 쉼히나의 목적은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현존과 머뭇은 모든 관계들의 평화로운 상태의 토대가 된다. 공간 안의 모든 존재들은 신적 현존과 함께 화해, 평화, 그리고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공생관계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 쉼히나는,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과 그들 가운데 거하심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나눔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으로부터 나누시고 자기를 그의 백성에게 내어주신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과 그들 가운데 거하심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나눔의 표상이다.

하나님의 신적 거주는 ‘하나님의 집’, 오이쿠메네(*oikumene*)로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거주하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장소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묘사한다. ‘하나님의 집’의 이미지는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관계적 거주의 공간을 잘 보여준다. 집은 구성원에서 소속감, 안정감, 친밀함을 제공한다. 모든 구성원은 집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며 타자의 생명에 함께 깊이 참여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서로 간의 깊은 연대와 공유된 비전, 그리고 공통의 번영을 향한 연대를 향하게 한다. 이처럼 집은 세상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잘 보여주는 메타포이다.<sup>19)</sup>

18)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225.

하늘에는 물론 땅 위에도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선을 향한 그의 의지의 대상이요, 자유에 대한 그의 사랑의 대상이며, 종합적으로 그 자신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바라는 그의 희망의 성취이다. ...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필요로 한다. 이 세계는 그의 고향이어야 한다. 그는 이 속에서 살고자 한다.<sup>20)</sup>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 인간의 형상으로 거하심으로 인간의 운명에 참여하고, 그의 백성의 운명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하심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삶과 그의 뜻에 참여한다. 그의 거하심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나는 성육신 된 아들을 통해서 인식된다.<sup>21)</sup> 하나님의 거주지로서 공간에 관한 이해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공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면서 마치 스스로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모순을 내려놓게 한다. 공간이 갖는 본질적인 속성, 즉 초월적이고 관계적이며 생명 지향적인 신성한 차원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공간은 실재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적이다. 공간은 무한하며, 동시에 단 하나이다. 플라톤은 사물들로부터 구분될 수 있고 사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공간을 모성의 신적 속성으로 묘사한 바 있다. 유대교에서는 거룩한 공간을 쉼이나와 성전과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설명했다. 특히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편재를 그의 공간적 현존으로 잘 설명한다. 모든 피조된 사물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19) Miroslav Volf, Ryan McAnnally-Linz, *The Home of God*, (Grand Rapids: Brazos Press, 2022), 14-15.

20)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김균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25.

21) 위의 책, 147.

공간을 절대 공간으로 다시 말하여 신적인 존재의 공간적 차원으로 이해한다. 공간이 하나님의 편재 차원으로 이해될 경우, 범신론적인 귀결들은 배제된다. 절대적인 공간으로 물질세계 전체와 이 세계 속의 모든 개별적 사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 현존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sup>22)</sup>

하나님의 거주지 또는 집으로서 신성적 공간은 거주자들의 사고와 이해의 중심을 형성시킨다. 단순한 거주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실재적인 부분에서 생활과 관계의 중심으로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존재들의 집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공간으로 어떠한 배제와 소외가 없으며 함께 공존하는 장소이다.<sup>23)</sup> 오늘날 현대인들의 공간 상실은 개체의 정체성 상실과 관계성 소멸과 같은 탈공간적 삶으로 이어져 불안감과 소외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창조주의 신적 공간성의 재발견은 공간에 관한 이데아적 욕망과 정치를 내려놓고 모든 존재의 집으로서 공통성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공간이 주는 생명의 충만함과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작동된다.

### 3. 피조물의 정주 공간으로서 삼위의 세계

하나님의 집은 모든 인간과 피조 세계의 집이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 안에 거주하시는 동시에 모든 피조세계가 자신의 세계 안에 머물도록 허용하신다. 공간의 내어쫓은 신적 환대이자 자기 헌신이다. 자신의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피조물들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피조물의 존재됨은 특정한 장소를 누림으로써 가능하며 더 나아가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과 정치성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다시 말해 존재로서의 소속감은 허용된 공

22)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231.

23) Miroslav Volf, Ryan McAnnally-Linz, *The Home of God*, 209.

간을 통하여 가능하다.

오리겐(Origen)은 스토아(Stoic) 사상의 영향에 따라 몸(body)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을 취하는 것으로, 어떤 존재적 행위가 가능한 성질을 구체화하는 형태의 장소와 공간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창조로 피조된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공간을 가지며 그 안에서 어떤 행위와 관계 맺음을 시도하면서 자유로운 행위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T. F. 토렌스는 오리겐을 인용하면서 장소가 가지는 관계적 개념을 강조한다. 이것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호모우시온(homouision)으로 모든 창조된 존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으로서 시공간의 창조주로서 모든 존재의 배경이 된다. 피조 세계는 자신이 거주할 공간을 창조할 수 없으며, 창조주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정주적 환경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다. 장소와 공간을 취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른다고 했을 때,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를 위한 거주 공간을 마련하신다.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는 타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미리 공간을 내어줌으로 타자가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창조한 행위이다.<sup>24)</sup> 하나님은 자신과 모든 피조물을 위해 공간이 되셨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사역과 활동을 통하여 구체화한다.

먼저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역사와 장소의 한복판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신적 행위로서 공간적 사역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시공간이 선택된 것이기도 하다. 성육신하신 예수는 인간과 공유하는 몸을 통하여 인간과 관계

24) T. F. Torrance, *Space, Time and Incar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16.

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신적인 본성을 유지하신다. 성육신의 시공간적 사건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피조물로서 신성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다시 말해 장소적 존재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장소 초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교부 신학자들은 공간과 장소를 다룰 때 단 순히 물질적인 테두리(vessel)로서 다른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거절했다. 장소와 공간은 신적 특성을 취하면서도 그 안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sup>25)</sup>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을 위한 집(말씀이신 그분 자신의 존재와 본성에 의해 만들어진 집)으로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한 집(그분의 말씀을 위한 집)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교회 또는 피조 세계는 성령에 의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위한 성소로 간주된다.<sup>26)</sup>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삼위일체적 자아 속에 타자의 가능성과 변영을 위해 문을 여시며, 그들을 위한 집을 세우신다. 우주의 목적론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 인간을 위한 집을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위한 집으로 제시하면서 삼위일체의 공동체적 삶을 형상화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sup>27)</sup>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생물들이 창조되어 삶의 공간들 속에 세워지기 이전, 하나님의 삶의 공간들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삶의 공간들은 다양한 생물들의 외적인 면과 범위와 활동 영역들이며, 동시에 내면적인 면이다.<sup>28)</sup> 하나님의 공간에서 모든 존재는 자유로움

25) 위의 책, 24.

26) Daniela C. Augustine, *The Spirit and the Common Good: Shared Flourishing in the Image of God*, 김광남 역, 『성령은 어떻게 공동선을 증진하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64.

27) 위의 책, 84.

28) Jürgen Moltmann, *Der Geist des Lebens*,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서울: 대한기독교서

을 경험하며 자아를 충분히 발전시킬 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삶의 사림 속에서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sup>29)</sup>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게 쉽 없이 생명의 영을 불어 넣어준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우주적인 영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받음으로써 존재한다. 영의 에너지와 가능성들을 통하여 창조자 자신이 그의 창조 안에 현존한다. 그는 창조에 대해 단순히 초월적으로 대칭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 내재한다.<sup>30)</sup>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거하심’에 관하여 성령론에서 다룬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롬 5:3) 그리고 “모든 육체 위에”(골 2:28-31) 부어짐으로써 종말론적인 새 창조가 시작되며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때 완성될 것이다. 창조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거하실 것이며, 거꾸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살 것이다.<sup>31)</sup> 칼뱅은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내재에 대한 표상으로 신적인 우주, 단 하나의 세계, 몸 안에 있는 세계, 영의 거함으로 발전시켰다. 하나님의 영은 세계 속으로 활동하여 들어오시며 세계의 관련성을 창조한다. 창조 안에 있는 신적인 영의 임재는 신학적으로 더 구분하여 그의 우주적 거하심과 그의 화해하는 거하심과 그의 구원하는 거함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sup>32)</sup>

창조된 세계는 신적인 존재의 절대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결의를 통하여 그를 위해 비워진 하나님의 공간 속에 존재한다.

---

회, 1992), 367.

29) 위의 책, 368.

30)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26.

31)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139.

32)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30.

세계는 자기 자신 속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현존의 비워진 공간 속에 존재한다.<sup>33)</sup> 종말에 완성될 새로운 예루살렘 역시 모든 존재의 거주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찬 공간이자, 모든 피조물이 공생, 공존하는 장이다.

모든 공간의 기원이자 생의 장소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피는 작업은 이 땅에서 탈장소적 또는 비장소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반성이자 ‘공간적 전회’(spatial turn)의 신학적 차원을 제안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설명하면서 그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공간을 잃어버린채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와 비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속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적 공간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III. 그리스도 사역의 장소적 의의: 십자가, 성만찬, 부활

#### 1. 십자가, 타자를 향한 포용의 공간

하나님은 모든 공간 안에 현존하신다. 그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신적 공간에서 모든 피조물과 화해를 이루신다. 피조 세계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며, 예수의 성육신은 신적이면서도 피조 세계의 공간적이라는 상호성을 가진다. 예수의 사역은 모두 장소 안에서 행해졌으며,<sup>34)</sup>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신적인 약속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

33) 위의 책, 235.

34) Murray Rae, "The Spatiality of God," 83.

육신 사건을 통해 가장 구체화되기도 했다.<sup>35)</sup>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육신의 존재적 참여방식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머물렀다. 피조된 공간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이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질 뿐 아니라 공간적인 사역임을 드러낸다. T. F. 토렌스는 *Space, Time and Incarnation*에서 성육신의 시공간적 의의를 제안하는데, 서구 철학 전통에서 무한한 공간은 물질세계로부터 분리된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된 것을 비판하면서, 신적인 공간 또는 신성한 영역으로써 공간을 현실 세계와 관련되지 않은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근대 과학의 발전 이후로 칸트식의 절대적(신적) 공간에 대한 환상이 제거되었고 절대적(신적) 공간은 물질세계와 깊은 관계성이 있음을 긍정하기 시작했다.<sup>36)</sup>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비공간적(non-spatial)이라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 그리스도 사역의 공간적 의의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공간적 사역이다. 미로슬라브 볼프와 라이언 맥아널리 린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분의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인간 존재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모두를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을 만드는 행위였다. 모든 피조물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집은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의지해있다.<sup>37)</sup>

더 나아가 미로슬라브 볼프는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포용적 공간 행위로 해석한다. 그것은 사랑의 공간, 치유의 공간, 만물과 하나되는 공간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공간적 행위이다. 특히 볼프는 하나님의 포용

35) 위의 글, 75.

36) T. F. Torrance, *Space, Time and Incarnation*, 57-58.

37) Miroslav Volf, Ryan McAnnally-Linz, *The Home of God*, 114.

공간을 십자가에서 팔 버린 예수의 행위를 기초하여 네 단계로 설명한다. 네 가지 포용의 움직임은 팔 벌리기, 기다리기, 팔 모으기, 다시 팔 벌리기이다. 팔 벌리기는 타자에게 손을 내미는 몸짓으로 자신 안에 타자가 들어올 공간을 이미 만들어놓고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 자신의 밖으로 나왔음을 알리는 신호다.<sup>38)</sup> 서로를 포용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비를 살아낸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두 팔에 끌어안긴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우리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팔을 벌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포용 안에서 더불어 기뻐할 수 있다.<sup>39)</sup>

하나님은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과 화해하신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자신의 공간 안으로 초청하여 화해하신다. 삼위일체의 공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 교제와 만남의 장을 통하여 구성된 사랑의 사립의 장이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삼위일체의 공간 사역은 신적인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보여준다. 단일성이 지배하는 공동체성이 아닌 다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합으로서 공동체성을 지향한다. 그렇다고 관계성을 지향한다고 해서 개인주의와 개별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공간은 개체성과 공동체성을 모두 존중한다. 더 나아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타자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인격으로써 존재한다.<sup>40)</sup>

바르트가 제안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공간적 속성은 삼위일체의 교제(communion)를 통하여 피조 세계와의 ‘친밀하기’의 방식을 보

38)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21), 224.

39) 위의 책, 207.

40) R. Venter, "Space, Trinity and City: a Theological Exploration," 218.

여주는 동시에 구별됨을 통하여 피조 세계와의 ‘거리두기’를 동시에 드러낸다. 하나님의 친밀하기와 거리두기는 삼위일체의 존재와 관계 방식이기도 하다.<sup>41)</sup> 하나님의 거리두기와 친밀하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에 의지하며 만물을 화해하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행위이다.

십자가의 공간적 의의는 타자가 적으로 남아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며 자신 안에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자리한다. 십자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원수에게 들어오라고 초대하신다.<sup>42)</sup>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신다. 그리스도의 수난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적대감을 극복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소외된 인류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드신 것이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삼위일체의 내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레네우스가 사용한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삼위일체가 세상을 향할 때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두 팔이다. 삼위일체의 자기 폐쇄적이지 않은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인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sup>43)</sup>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아 안에 인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심으로써 언약을 갱신하신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공간을 마련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언약의 함의를 지닐까?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타자의 정체성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타자를 위해 자아 안에 공간을 마련하고 타자의 유동적 정체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기꺼이 재협상한

41) Murray Rae, "The Spatiality of God," 79

42)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199.

43) 위의 책, 201-203.

다는 것을 뜻한다.<sup>44)</sup>

이처럼 그리스도의 공간적 사역으로 십자가는 화해와 포용의 공간적 상징이자 실천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적 사역으로서 십자가는 모든 피조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한다. 세속 도시에서 십자가의 공간적 의의를 실천하는 것은 두 팔 벌려 타자를 용납하는 행위이며 한 몸으로 하나되어 공존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소적 사역은 성만찬의 나눔과 실천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 2. 성만찬, 환대와 일치의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적 사역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성만찬이다. 성만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해 들이신 예전적 사건이다. 또한 성만찬이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진행되지만 그리스도 몸을 나누는 행위는 초월적이며 신성한 정치적 사건이다. 참여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경험하며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한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의 구체성을 경험하며 동시에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위한 환대와 용서의 공간을 마련하고 초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sup>45)</sup>

환대는 항상 공간을 제공한다. 환대의 공간은 물리적 공간, 사회적 관계와 특정한 가치와 의미들을 포괄한 새로운 정치사회적 장소이다.<sup>46)</sup> 타자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이자 공

---

44) 위의 책, 243-244.

45)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204.

46)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99), 150-152.

동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공적 참여이기도 하다. 현대의 공간이 갖는 성질은 참여자들의 의미 부여보다는 그 공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내러티브의 공통의 의례가 더욱 우선한다.

성만찬의 공간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니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신적 현대의 자리를 가장 구체화하여 보여준다. 성만찬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는 변화와 변혁의 자리인 동시에 수많은 이름없는 타자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자리이다.<sup>47)</sup> 윌리엄 캐버너는 성만찬 자리를 하나의 ‘공간 이야기’(spatial story)로 해석하면서 물질성과 장소성에 관한 활동으로 연결시켰다. 성만찬은 육체적 한계, 세속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치종교적 공간을 빚어낸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새롭게 형성하는 탁월한 ‘공간 이야기’이다. 누가 식탁에 참여할 것인지, 식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공간의 한계와 특징을 결정한다.<sup>48)</sup> 급진 정통주의(Radical Orthodoxy)자들은 성만찬을 하나의 정치체로 이해한다. 세속화로 인한 사회적 원자화와 개인주의에 빠진 근대성에 대항하여 인간 사회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치체로서 해석한다. 그들에게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이자 예수의 삶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변혁적 장소이기 때문이다.<sup>49)</sup>

기독교 공동체는 역설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가 됨으로써 진실한 교회의 정체성을 얻게 된다. 보편적인 장소로서 창조된 모두를 포용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47) 김승환,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210.

48) William T. Cavanaugh, *Theopolitical Imagination: Christian Practices of Space and Time*, 손민석 역,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서울: 비아, 2019), 152-153.

49) 김승환, “급진 정통주의의 인간 이해와 성만찬 정치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8(2022), 20-23.

경륜의 일부이자 타자를 사랑하는 장소를 구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낸다.<sup>50)</sup> 특히,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보편성의 핵심이라고 할 때, 성만찬은 특정 장소의 한계/경계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특정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특정한 공간적 실천이다. 성만찬은 지역 교회에서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체적으로 마주하는 가운데 전 우주적인 규모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실천된다. 성만찬을 통해 참여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과 연결되며 그것은 초장소/탈장소적인 동시에 공간의 신성성과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전하는 이야기를 실천하는 성만찬은 모든 공간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화해와 연대의 장을 실천한다. 세속적 자본주의 세계화는 같은 시공간에 사람들을 병치하지만, 성만찬의 공간에서 우리는 일정한 위치에 병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시된다.<sup>51)</sup>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는 신성한 연합과 일치에 초대 장소로서 성만찬은 진정한 보편성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 사역의 장소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만찬은 예수를 기념하는 동시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한다.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서 탈세속적인 이상적 공간을 향하도록 안내한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하늘과 땅,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몸과 영혼을 연결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 성만찬적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미리 맛보며 종말론적 시공간을 살게 한다.<sup>52)</sup> 또한 성만찬의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 변혁에 열려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더 이상 개별적 자아에 또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안전한 모임에 중심을 두지 않으며, 타자들을 위한 공간들이 됨으로써 드러난다.<sup>53)</sup> 공간으로서 존재됨과 공동체 됨

50) Philip Sheldrake, *Spaces for the Sacred*, (London: SCM press, 2001), 85.

51) William T. Cavanaugh, *Theopolitical Imagination*, 192.

52) William T. Cavanaugh, *Torture and Eucharist*, (Blackwell Pub, 2007), 225-228.

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 3. 부활, 변화와 새로움의 공간

T. F. 토렌스는 새로운 하늘과 땅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바라본다. 그는 기독교의 종말에 관한 논의가 언제 그날이 임할지에 관한 시간의 논의로 환원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공간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공간적인 사건이며 전(whole)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구속과 함께 진행된다.<sup>54)</sup> 예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존재적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으로 우주적 부활(universal resurrection) 또는 새로운 하늘과 땅의 변형(transformation)이기도 하다. 토렌스는 부활을 지칭하는 두 헬라어 *anistemi*와 *egeiro*를 설명하면서 부활은 장소의 이동으로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anistemi*는 일반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다’ 또는 ‘잠에서 깨어나다’의 뜻을 지니며, *egeiro*는 ‘(수동형으로) 병환 중에서 일어서다’를 의미한다.<sup>55)</sup> 즉, 부활이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로 존재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존재의 상태를 포함한 공간의 이동 또는 공간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연약함의 장소에서 강함의 장소로, 죄악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의 옮겨짐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소적 변화를 수반하며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53) Philip Shelldrake, *The Spiritual City: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Urban*, 김경은 역, 『도시의 영성』 (서울: IVP, 2018), 224.

54) Myk Habets, *Theology in Transposition: A Constructive Appraisal of T. F. Torrance*, (Fortress Press, 2013), 193-194.

55) T. F. Torrance, *Space, Time and Resurrection*, (Edinburgh: T&T Clark, 1998), 31-32.

토렌스에게 부활은 시간과 공간적인 구원의 사건이다. 부활은 공간과 시간을 폐기하거나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본래의 창조적 원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들은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 인간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되지 않기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구속의 사건을 재현하며 실천하게 된다.<sup>56)</sup>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의 장소 이동이자 존재론적 변화로서 그리스도 자체를 공간화시킨다. 천상적 장소(heavenly place)로서 그리스도는 실재하는 모든 존재의 토대이자 종국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한다.<sup>57)</sup>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이자 공간의 완성이다. 토렌스가 제안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장소성은 창조-구속의 생명이 풍성한 공간 질서를 드러내며 타락한 세속의 장소성을 고발한다. 더 나아가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의 타락한 공간의 생명 없음을 폭로하고 참된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게 할 것이다.

#### IV. 나가는 말

공간과 장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된 영역이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장이다. 세속화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장소는 상업화되고 공간은 자본화되어 갔다. 신성한 내러티브를 상실한 공간은 세속의 욕망과 자본에 의해 점령되어 갔으며, 장소를 상실한 현대인은 뿌리를 상실한 토대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잃어버린 공간과 장소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간의 창조주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

56) T. F. Torrance, *Space, Time and Resurrection*, 90-91.

57) Myk Habets, *Theology in Transposition: A Constructive Appraisal of T. F. Torrance*, 198.

계성과 신성성을 확인하면서 모든 장소를 통한 관계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피조세계의 삶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집’ 개념과 그리스도 사역의 공간적 의의는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장소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안한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계는 피조된 모든 존재에게 특정한 삶의 조건을 주는 특정한 장소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간다. 그 공간은 존재자 스스로가 창조한 것이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내어줌의 결과이다. 거주할 공간을 상실한 존재는 내적 파괴를 피할 수 없으며, 거주지가 있을 때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거주한다는 것은 실존 이상의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안전과 인간적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다. 즉, 거주 공간은 하나의 성스러운 공간이자 관계의 근원적 공간이다.<sup>58)</sup>

그리스도 사역의 장소적 의의를 고려할 때, 교회는 강력한 정치사회적 현실로서 하나님의 환대와 은총의 특성을 드러내는 장소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집은 환대의 실천으로서 친밀한 사랑의 공간을 창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실현한다. 초기 교회에서는 타자를 위한 환대의 방을 마련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간주하기도 했다.<sup>59)</sup>

공간과 장소는 우리를 형성한다.<sup>60)</sup> 우리가 마주 대하는 공간과 장소가 지니는 가치와 내러티브는 의식의 언저리에서 깊숙이 자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공간성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사역의 장소적 특징을 성

58) 김재철, “공간과 거주의 현상학,” 『철학논총』 56집 (2009), 14-17.

59)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150-153.

60) Murray A. Rae, *architecture and theology: the art of place*,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7), 1.

찰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다 나은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승환.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 \_\_\_\_\_. “급진 정통주의의 인간 이해와 성만찬 정치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8(2022), 7-30.
- 김재철. “공간과 거주의 현상학.” 『철학논총』 56(2009), 367-391.
- 김학봉.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과 과학 신학의 추구: 토마스 토렌스.” 김동규 외.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2』 서울: 도서출판100, 2022.
- C. Augustine, Daniela. *The Spirit and the Common Good: Shared Flourishing in the Image of God*. 김광남 역. 『성령은 어떻게 공동선을 증진하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 Cavanaugh, William T. *Theopolitical Imagination: Christian Practices of Space and Time*. 손민석 역. 『신학, 정치를 다시 묻다』. 서울: 비아, 2019.
- \_\_\_\_\_. *Torture and Eucharist*. Blackwell Pub, 2007.
- D. Pohl, Christine.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99.
- Girringe, Timothy. *A Theology of the Built Enviro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Gordon, James R. “Rethinking Divine Spatiality: Divine Omnipresence in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The Heythrop Journal*. (2018), 534-543.
- Habets, Myk. *Theology in Transposition: A Constructive Appraisal of T. F. Torrance*. Fortress Press, 2013.
- Massey, Doreen. *For Space*. 박경환 · 이영민 · 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 서울: 삼산, 2016.
- Moltmann, Jürgen. *Der Geist des Lebens*.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_\_\_\_\_.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 \_\_\_\_\_. *Trinität und Reich Gottes*. 김균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R. Venter. "Space, Trinity and City: A Theological Exploration," *Acta Theologica* 1(2006).

Rae, Murray A. *architecture and theology: the art of place*.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17.

Sheldrake, Philip. *Spaces for the Sacred*. London: Scm press, 2001.

\_\_\_\_\_. *The Spiritual City: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Urban*. 김경은 역. 『도시의 영성』. 서울: IVP, 2018.

Staniloae, Dumitru. *The Experience of God* Brookline: Holy Cross Orthodox Press, 1994.

Torrance, T. F. *Space, Time and Incar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_\_\_\_\_. *Space, Time and Resurrection*. Edinburgh: T&T Clark, 1998.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21.

\_\_\_\_\_. Ryan McAnnally-Linz. *The Home of God*. Grand Rapids: Brazos Press, 2022.

Zizioulas, John D. *Being As Communion: Studies In Personhood And The Church*. 이세형 · 정성애 역. 『친교로서의 존재』. 서울: 삼원서원, 2012.

논문투고일: 2023년 07월 14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3일

---

 • 국 문 초 록 •
 

---

이 연구는 공간과 장소의 기원으로서 삼위일체의 공간성(장소성)을 살피면서 공간과 장소의 본질적인 특성을 탐구한다. 공간/장소의 창조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성과 사역은 피조된 존재로서 공간을 점유하고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장소적 의의를 인식하게 한다. 위르겐 몰트만이 제안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페리코레스스의 상호침투와 상호내주의 관계 안에 존재하신다. 이러한 삼위의 존재 방식은 곧 공간/장소의 관계성과 상호성을 강조하는 신적 의의를 드러낸다. 신적인 사랑의 관계성에 기초하여 공간에서 펼쳐지는 사귄과 상호응답은 인간의 공간/장소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공간의 기원으로서 삼위일체의 신적 공간은 곧 관계적 공간이며, 모든 곳에 함께 머무는(being with) 토대가 된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공간/장소성은 예수의 활동을 통하여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T. F. 토렌스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간성을 십자가, 성만찬,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밝혀낸다. 연구자는 신적 공간성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공간적 의의를 살피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장소에서 신성한 사귄과 관계적 충만함을 제안할 것이다.

**주제어:** 신적 공간성, 하나님의 집, 장소/공간 신학, 도시 신학, T. F. 토렌스

---